

데스크사자



장필수  
사회당 편집국장

100여 년 전만 해도 대전은 허허벌판이었다. ‘한밭 골’이라는 이름처럼 대전전을 중심으로 나뉜 밭이 펼쳐진 곳이었다. 도시가 형성되고 이듬해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였다. 일제는 곡물과 자원을 본국으로 수탈하기 위해 경부선 철도를 놓기로 했다. 철도역은 당초 충남도청이 있는 공주와 이미 도시가 형성된 충주가 유력 후보지였다. 하지만 일제의 한반도 식민 정책의 골자는 철도 부설과 자국인 이주였다. 철도 부설로만 본다면 공주와 충주가 좋겠지만 자국인 이주를 위해서는 신성 도시가 필요했다. 그렇게 조성된 도시가 대전이다. 대전역이 신설되고 일본인 상인들이 정착하면서 신도시가 형성됐고 일본 상인들의 로비로 충남도청까지 유지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활력 넘치는 ‘핫플’로 거듭나

이렇다 보니 대전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등 원도심과 유성구 대덕연구단지가 핵심 상권이자 관광지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도시를 갈 때 포털에서 ‘가 볼 만한 곳’을 검색하곤 한다.

기고



정소영  
동화 작가

일본의 그림책 작가 사토 와키코의 책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라는 책에 나오는 엄마는 맥가이버 같은 엄마다. 간단할 줄거리를 말하면, 빨래하기를 좋아하는 엄마가 있었다. 이 엄마는 집안에 있는 빨래는 물론 고양이, 개, 닭, 소시지, 구두, 슬리퍼 등 닦지는 대로 모두 빨아 집게로 꼭 집어서 빨랫줄에 널었다. 어느 날, 천둥 도깨비가 구름을 운전해서 엄마의 빨랫줄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빨랫줄에 걸리고 만다. 엄마는 이 도깨비까지 빨아서 빨랫줄에 널었다. 아이들은 바짝 마른 천둥도깨비의 얼굴을 예뻐 아이로 그려 주었다. 다음 날, 더러운 도깨비들이 몰려와 빨아 주고 씻겨 주고 예쁜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 엄마는 힘차게 말했다. “좋아, 나에게 맡겨.” 나는 이 그림 동화책을 읽으며 나의 엄마를 생각했다. 나는 엄마를 기억할 때 ‘베그락’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들곤 한다. 어린 시절 엄마는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했는

은펜칼럼



김진우  
전 광주상일여고 교장

달포 전에 정년 퇴직을 했다. 맘들 백수(白手)가 되었다고 했다. 맨손이니 직업이 없다는 뜻이었다. 맞는 말이지만 나는 무소속이란 말이 더 실감이 간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자의든 타의든 반백 년 이상을 어디든 소속되어 있었다. 제도에 얽매었던 비직고 들어갔든 간에 유소속(有所屬)이었는데 이제 다 풀려졌다. 유소속과 무소속의 대비되는 느낌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패곡산에 오르면서 발밑에 늘어진 고속도로의 차량을 먼 옛날 추억처럼 내려다봤다. 주말에 있었던 갖가지 사연을 집에 놓고 무겁게 짓누르는 일터로 빠른 게 이동하는 출근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대열에 끼었는데 오리나무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구경하듯 바라봤다. 그리고 가장 여유롭게 느껴지는 시간은 9시부터 11시였다. 부탁할 것도 지시할 것도 처리해야 할 것도 없는 넉넉한 오전이어서 편안했다. 그러나 이런 느낌도 유한할 것이다. 곧 무덤덤한 일상처럼 반복될까 봐 걱정된다. 직함 앞에 전(前)이 불

‘노잼 도시’라던 대전은 지금

‘대전 가 볼 만한 곳’을 검색하면 국립중앙과학관, 엑스 포과학원, 한밭수목원, 장태산자연휴양림 등이 뜬다. 딱히 구미가 당기는 여행지가 없다. 그래서 노잼(재미가 전혀 없음) 도시를 말할 때 대전이 첫 손가락에 꼽히곤 했다. 그런 노잼 도시가 이런 한 번쯤 가 볼 만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방문한 대전에선 이런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광주로 치면 충장로에 해당하는 은행동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빈 점포가 늘어가는 충장로와 달리 임대나 매매를 써 붙인 상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상가마다 활기가 넘쳤다. 오색 우산이 하늘을 메운 거리에선 축제 기간이 아닌데도 흥미로운 길거리 공연이 행인들의 발길을 잡았고 유명 재래시장인 성심당은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오랜 역사라는 공통점에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궁전제과와 활기 없는 충장로가 오버랩됐다. 대덕연구단지에선 신세계백화점인 ‘핫플’(hot place)로 뜨며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지우고 있었다.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는 명칭 그대로 백화점은 기본에다 호텔과 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이다. 광주신세계가 7년 전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자 신세계그룹이 투자처를 대전으로 돌려 지은 곳이다. 한 곳에서 쇼핑과 문화생활, 숙박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당연했다. 정원으로 꾸며진 옥상에는 단순히 힐링을 위해 찾은 시민들도 많았다. 대전의 부상으로 인해 광주가 노잼 도시 1번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주도 포털에서 가 볼 만한 곳을 검색하면 눈길을 끄는 곳이 많지 않다. 그렇

엄마는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 주는 사람

지 건너물 행상을 하였다. 며칠씩 먼 곳으로 장사를 갔다 돌아오셨다. 대문 ‘베그락’ 소리가 나면 엄마가 보통이를 이고 들어오셨다. 밤늦은 시간에 기차를 타고 오신 것이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유년의 그 소리는 기다림과 그리움과 사랑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엄마는 우리에게 고향이며 뿌리 같은 존재다. 우리는 엄마를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삶의 근원을 찾는다.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 그림책에 나오는 엄마와 나의 엄마가 같은 엄마로 쉽게 다가오는 것은 빨래가 주는 이미지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엄마는 역동적이다.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초능력을 가진 엄마로 보인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엄마도 초능력자였다. 엄마는 무엇이든 해결해 주었다. 무엇이든 척척 빨아 빨랫줄에 너는 이 그림책 속의 엄마처럼 강인하고 부지런하고 무슨 일이든 해 냈다. 이 그림책 속에서 압권인 장면이 있다. 온갖 것을 다 빨아 널은 장면이다. 고양이, 개, 닭, 신발장의 슬리퍼, 구두, 우산, 게다가 더러운 도깨비들까지 빨아서 빨랫줄에 너는 엄마를 상상해 보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빨아서 햇빛에 널어 말리는 엄마는 위대한 혁명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도깨비를 예쁜 도깨비로 변신시키기까지 한다. 생활을 디자인하는 예술가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적에 엄마는 신처럼 전지전능하고 거대하고 무슨 일이든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 모두가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어른이 된 후에 알게 된다.

무소속

고, 아내와 조율하여 첫 달 연금을 냈다. 자주 가게 될 곳의 시내버스 노선도 검색해 보았다. 환승하는 방법을 물어서 실행해 보다가 빨리빨리 못한다고 버스 기사님께 짜증 한 방 먹기도 했다. 한 재벌 정치인은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 일 때 70원이라고 대답해서 비판을 받았다. 작년에 어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23년 전의 금액인 1200원이라 답변해서 곤욕을 치렀다. 이런 기억을 떠올리며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환승되고 요금도 1250원임을 확인했다. 퇴임 직전에 갔던 몇 연수에서 반복된 말이 있었다. 교원·경찰·군인 퇴직자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털리거나 이용당했으면 이런 말이 지켜야 할 존직처럼 강사의 입에서 나올까. 현실은 이렇게도 역설적인가, 바르게 살도록 가르쳤고 범죄자를 잡아들였고 상명하복으로 강직하게 살았기에 범접할 수 없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실물 사회에는 더 교수들이 많은가 보다. 가까이 지내는 군 출신 선배가 아픈 경험으로 한 수 가르쳐 주었다. 왜 사기를 당하는가 딱 한 문장이었다. “상대방이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쫄하고 달콤한 것은 기본 태도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 될 만하기에 덜컥 문다는 것이다. 미끼를 물지 않은 봉어·잉어·뚝은 지금도 저수지에서 썩진 강에서 득랑만에서 자유히 뛰놀지 않는가, 오늘날 보이스

다면 결국 있는 자원에 의미를 부여해 스토리를 입히고 상품화해야만 외지인을 불러들일 수 있다. 광주는 대전에 비해 도시 역사도 깊고 국립공원 무등산이라는 자연자원도 있다. 여기에 아픈 역사이지만 한국 민주주의를 이끈 5·18도 훌륭한 자산이다. 홍콩에 본사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다크 투어리즘을 적극 활용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원도심인 충장로와 옛 전남도청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전당, MZ세대의 핫플 동명동을 한 블럭으로 묶고 넓게는 양림동까지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역사·문화 관광지로 경쟁력이 충분하다.

광주, 복합쇼핑몰 성공으로 오명 벗어나

문제는 누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어떤 역량을 보여 주는가일 것이다. 민관이 참여해야겠지만 최종 컨트롤타워는 광주시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 조직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다. 그 첫 시도가 복합 쇼핑몰이 될 것이다. 유통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광주 복합 쇼핑몰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콘텐츠로 선보일지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복합 쇼핑몰은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광주가 재미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행정력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社說

‘상시 개방’ 무등산 정상 원형 복원 고민해야

지난 8일 무등산 정상부인 서석대부터 군부대 주둔지까지 등산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3년 만에 이뤄진 정상 개방에 지역에서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천왕봉·지왕봉·인왕봉 주상절리대의 비경을 보기 위해 몰려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상 탐방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욕구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요구에 공군본부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다. 이날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 정상에 오른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군본부 측이 철책 외곽 펜스를 안쪽으로 옮기고 전망대 위치를 변경해 상시 통행로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 1일 새해 일출은 무등산 정상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국방부와 공군 간 상시 개방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방 시간과 보안·안전사고 대책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광주시가 현실화되면 지난 1966년 공군 방공

포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 접근이 통제됐던 무등산 정상이 57년 만인 내년 상반기부터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등산 정상을 고스란히 시민 품으로 돌려주려면 방공포대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다행히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광주시가 부지만 결정해 주면 옮길 의향 있다”고 밝힌 만큼 양측은 이전 부지 조기에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서둘러야 할 것은 군 시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자연환경의 온전한 복원이다. 해발 1187m로 알려진 국립공원 무등산의 실제 높이는 1183m다. 이는 군부대가 최고봉인 천왕봉을 4m나 깎아 평탄하게 만든 뒤 군사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고의 비경을 자랑했던 천왕봉은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상태다. 군부대 및 방송통신탑 이전과 함께 무등산 정상을 최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약취 민원 쇄도 ‘합류식 하수관’ 교체 급하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약취 관련 민원이 광주시에 쇄도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주민을 비롯해 동구 충장파출소 인근 금남지하상가 상인, 동구 학동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약취 때문에 집단 민원을 냈다.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단지는 공물적으로 분뇨를 직접 내려보낼 관이 없어 정화조를 별도로 갖춰야 하는 ‘합류식 하수관’ 설치 지역이다. 오수와 빗물을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과 달리 약취가 발생한다.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넘치거나 압모니아 가스 때문에 전기 설비가 고장나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4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땅속에 파묻은 정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은 정화조 내에서 다량으로 발생한 메탄 가스 때문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내 하수관 4459km 가운데

61.9%(2759km)가 ‘분류식 하수관’이고, 나머지 38%(1693km)는 ‘합류식 하수관’이다. 이로 인해 6만 3150개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2조 7683억 원을 투입해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5년째 진행 중인 하수관 교체 사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정비 계획 완료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하수관도에서 발생하는 약취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이유다. 결국 관건은 수조 원대에 이르는 예산 확보다. 광주시는 약취를 유발하는 문제의 ‘합류식 하수관’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인 ‘웃놀이’가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웃놀이는 명절에 온 가족과 친지, 이웃 주민들이 모여 즐기던 놀이다. 편을 나누고 웃가락 내 개를 던져 웃판의 모든 말을 묵묵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퇴직 후 시력을 잃고 당뇨와 통풍 등 7가지 증병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분수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그 지점에서 재미있게 산다고 한다.

플라톤의 다섯 가지 행복론도 모두 조금은 부족해야 한다고 했다.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칭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용모,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의 명예,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청중의 절반쯤은 박수를 치지 않는 말썽씨. 이 정도에서 자족하면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이라고 하니 실행해 보고자 한다.

이제 가면을 벗고 꼬박 곱질한 한 명예를 내려놓는다. 목소리는 낮게 하고 발걸음은 빨리하여 심신을 추스를 것이다. 출간한 칼럼집을 백팩에 넣고 ‘백반’(百飯) 기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신세 됐던 선후배 동료 100명을 만나 백반 한 그릇 대접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무소속이기에 쫓기거나 특별히 결릴 일이 없다.

제시대의 놀이인 저포(槨筒)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 초기에는 ‘사희’(柶戲)라는 단어가 쓰였고, 조선 중·후기 들어서는 ‘척사’(擲擲)라는 한자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에는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진 것도 확인되고 있다.

웃놀이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되어 왔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 속 평가 받고 있다. 현재에도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게임화가 이뤄지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무형 문화재로서 가치는 충분하다.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의 붕괴 속에서도 웃놀이는 여전히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배우기 쉬운데다 주변 상황에 맞게 열린 놀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문화재 지정과 함께 미래에도 웃놀이가 활발하게 전승되었으면 한다. /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웃놀이**

은 대표적인 전통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했다